

"냉각된 한일관계, 민간교류로 타개해야"<전문가들>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13-09-27 15:16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한국과 일본 관계가 역사인식 문제 때문에 악화했지만, 양국 간 민간교류의 맥은 끊기지 않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제안했다.

26일 서울대 일본연구소와 한일친선협회 주최로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열린 '한일 간 풀뿌리 교류와 친선' 심포지엄에서 이런 견해가 쏟아졌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양국관계가 나빠졌을 때일수록 인적·문화 교류로 교착을 타개하려는 역발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류는 '탈정치화'해야 지속 가능한 데 양국 교류의 착실한 진전을 방해하는 건 과거사 문제"라면서 "일본은 스스로 천명한 과거사에 관한 약속이나 담화에 어긋나는 발언·행동·조치를 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두 나라가 균형감, 배려와 관용, 화해와 비전에 기반을 둔 열린 자세로 과거사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인적·문화 교류를 그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구종 한일문화교류회의 위원장은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의 우호 증진과 신뢰 구축에는 민간의 풀뿌리 교류가 바탕이 됐다"며 "갈등을 겪는 한일 관계의 해법을 시민사회와 문화에서 찾는 지혜와 여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놴.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한국과 일본은 같은 고민과 과제를 안고 있다"며 "저출산 고령화 심화, 청년실업, 다문화 현상 등 공통의 관심영역이 넓어지면서 교류와 대화의 분야도 점점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이어 "냉정한 국제정치의 역학 속에서 중앙정부와 대기업은 역사인식·영토분쟁·이익추구라는 기존 구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면서 "점점 시민 교류로 공동의 이해와 합의를 찾는 과정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와카미야 요시부미 전 아사히신문 주필은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 48년간 양국 국민의 교류는 비약적으로 늘었는데 지금 정치·외교 관계는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위기에 언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일 양국의 언론사들이 자국 중심적 시각을 벗어나 서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기획을 시도하면 양국 대립을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ice@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 <하남 살인사건...경륜 빠진 40대 가장의 뒤늦은 후회>
- ☞ 유아인 "정직하다면, 투박해도 목소리 내고 싶어"
- ☞ 금융당국 "동양그룹, 시장원리로 구조조정될 듯"
- ☞ <美야구> 류현진 30일 마지막 등판서 다저스 새 역사 도전
- ☞ <美기아차 방문 김문수, 韓현장근로자 작업태도 비판>

▶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 지금 뉴스스탠드에서 뉴스Y를 만나보세요!

▶ 그림으로 보는 "인터랙티브 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 기사 주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06503942>

인쇄하기

취소